

지속적인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



김 준 영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경제공동체인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글로벌 시장질서에 엄청난 혼돈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그 어느때 보다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전, "군주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출신 "마키아벨리"는 어떤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한 국면에 처했을 때, 경제주체(개인, 기업, 국가)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3가지 생존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약자들끼리 연합해 생존력을 강화하는 방법(영농조합, 협동조합 논리)

둘째, 자신보다 약한 적을 공격해 세력을 키우는 방법(M&A, 인수합병)

셋째, 강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살아남는 방법(전략적 제휴)을 통해 자구책을 강구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13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고, 외적으로는 글로벌시장을 놓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예정입니다.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또 다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변화와 위기국면이 예상되며, 불확실성 시대에 한우산업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평소 생각한 바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2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육우 사육두수는 3,059천두이며, 그중 한

우 2,933천두, 육우 126천두, 한우 가임암소 1,232천두로 전년 동월 대비 한육우 두수는 3.7%증가, 한우 4.0%증가, 육우 3.1%감소, 한우가임암소 1.37%감소로 한우산업 역사상 최고치의 사육두수기록을 경신하였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증폭과 한우사육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사육두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위기의 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은 검은 뱀의 해 "계사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듯이 뱀은 앞으로 전진할 때 지그재그로 이동하는 특징을 지닌 동물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국내 한우산업의 호불황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새로운 전략과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듯 합니다.

지속적으로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이 걸어왔던 과거 상황을 우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산업은 일정한 주기(11년)속에서 호불황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한우 캐틀 사이클(cattle cycle)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캐틀사이클도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변화무쌍하게 변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03년 12월 북미대륙에서 발생한 BSE(일명 광우병)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중단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한우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201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생한 FMD로 인해 국내 한우산업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적인 FMD백신접종

이라는 초강수를 통해 대응하였으며, 향후 FMD 비발생국가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함께 부여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시행했던 접근방식으로 향후 한우산업에 대입할 수는 없으며, 한우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한우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가 새삼 필요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우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적 요소와 일반 요소들을 나 타내고자 합니다.

첫째, 암소자율감축제도로 한우암소 10만두를 줄이는 정부정책에 대해 한우농가들의 참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율감축제도에 비해 미경산(처녀암소) 한우암소에 대한 **고품질 육성장려금 제도를 도입** 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는 한우 감축정책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경산화우암소 브랜드(마쓰자카비프, 오우미비프, 요네자와비프 등)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화우사육두수가 180만두 가량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축산물품질등급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미경산한우암소가 식육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행 품질등급제도

상 성별표시(암, 수, 거세)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성별표시로 암, 수, 거세, 미경산 4가지로 구분해야만 합니다. 미경산한우암소는 부드러움(연도)에서 한우거세우와 비슷하며, 한우암소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풍미(맛)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고품질 한우고기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식육시장에 신뢰성 확보를 도모한다면 한우사육두수 감축은 물론, 식육시장의 새로운 바람, 틈새 고급육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한우부산물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만 합니다. 최근 식생활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한우 부산물 선호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예로부터 상어지느러미인 삭스핀은 고급 음식재료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삭스핀이 존재한다면 육지에는 한우 우족이 영양소 면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우부산물 판매점들의 부가가치증진 방안으로 한우부산물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인지를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우부산물의 소비자 선호도 하락은 한우 생체거래가격 하락을 의미합니다.

넷째, 한우수출기획단 및 검역시행장 2곳(영남, 호남)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미국산쇠고기가 수입중단(2003년)이후, 2007년 수입재개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촛불시위는 우리 한우산업 종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이제 더 이상 안전성만 가지고, 촛불시위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내수시장 보다는 우리 교포들

이 살고 있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만 합니다. 해외수출을 위해 한우수출기획단이 구성되어 5,000만 국민들에게 한우 해외수출이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한다면 촛불시위로 얻은 한우고기의 충성도(Royalty)를 다시금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한우사육농장에서는 비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절감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인공포육기(다두사육농가) 및 카프허치(송아지 독방) 지원사업을 통해 이유시기를 단축한다면 한우거세우 생후 27~28개월 시장출하가 가능해 집니다. 또한 미생물발효시스템을 농가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증체성적 및 육질개선효과, 사료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가축생산비절감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섯째,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47,000개 농장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0% 농장은 50두 미만의 소규모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마키아벨리의 3대 생존전략중 첫 번째인 자신과 비슷한 약자들끼리 연합해 생존력을 강화하는 방법(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을 지역에 맞게 결성하여 새로운 시대를 한우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일곱째, 2013년부터 전라북도 정읍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꿈과 희망의 프로젝트인 "불황극복, 한우의 희망 500캠페인"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료비인상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인플레이션), 암소 산

지가격 하락이 맞물려 소규모 한우사육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우경산우를 시세의 80%로 매입해서 10개월 동안 전문적인 비육농장에서 비육시켜 출하 후 수익(초기 20% + 추가수익부분)을 환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소규모 한우농장은 비육기간에 소요되는 사료비 및 각종 비용의 부담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한우산업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의 단합 및 협력, 아이디어 공유, 퓨전(이종업종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주신 (사)한국사료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